

## 사무엘 상

사무엘서와 열왕기는 원래 각각 한 권이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70 인역에 네 부분으로 나뉘어 제 1 왕국기부터 제 4 왕국기로 되었습니다. 후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 제 1 및 제 2 왕국기가, 책의 전반부에 사무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어, 사무엘 상하로 명명되었습니다. 같은 때에 제 3 및 제 4 왕국기는 열왕기 상하로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추정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사무엘상은 선지자와 사사들이 다스렸던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주요 인물인 사무엘, 사울,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왕정이 수립된 후에는 선지자로 섬겼습니다.

## 노트

1. 사무엘의 부모의 이름은? 엘가나와 한나 (삼상 1:1-2)
2. 엘가나의 두 아내의 이름은? 한나와 브닌나 (삼상 1:1-2)
3. 엘가나의 가족은 매년 어디로 가서 제사를 드렸나? 실로 (삼상 1:3) ⇒ 실로는 '안식의 장소'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에서 약 20 mile 북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사사시대 말기부터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삼상 4:3-4, 11). 또한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 600 명의 남자 중 200 명이 아내를 얻은 곳이기도 합니다(사사기 문제 80 번 참조).
4. 엘리의 두 제사장 아들의 이름은? 홉니와 비느하스 (삼상 1:3)
5.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 제물의 분깃을 두 아내 중 누구에게 더 주었나? 한나 (삼상 1:4-5) ⇒ 브닌나의 두 배로 주었습니다 (삼상 1:5)
6.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서원하였나? 나실인으로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삼상 1:11)
7. 기도하는 한나를 본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이유는? 포도주에 취한 줄 알았는데 그 이유는 기도를 속으로 하여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음으로 (삼상 1:12-14) ⇒ 이 대목을 보면 당시에 술 취한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온 경우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 경험에 비추어 눈에 보이는 상황을 토대로, 한나의 심중은 보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는 한나도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줄로 안 것 같습니다. 제사장으로써의 영력과 생각이 짧았던 것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에 취해 제사를 드리러 갔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사장 엘리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올 이야기지만 제사장인 두 아들의 관리도 제대로 못했고 자신은 게을러서 성전 문설주 곁에 의자나 하나 놓고 거기에 앉아 있는 게 고작이라 늙고 비대한(개역판에는 비둔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로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말입니다.
8.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삼상 1:20) ⇒ 원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9. 한나는 젓 떤 사무엘을 어떻게 하였나?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렸다 (삼상 1:28) ⇒ 사무엘이 몇 살 때 젓을 떤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풍습으로 3 살부터 5 살 사이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러나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기록(삼상 2:11)을 볼 때 5 살쪽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10.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의 대표적 악행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경시하여) 제물을 가로채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삼상 2:13-17, 2:22)
11. 외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엘가나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은? 5 남매를 더 주셨다 (삼상 2:21) ⇒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중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12. 삼상 2:33 ⇨ 이스라엘의 어느 가문이 오랫동안 18 살 이상 산 자가 없어서 그 들의 혈통을 조사해 보니 엘리니의 후손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Bible p386.
13. 삼상 3:1 ⇨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전보다 덜 하셨다고 보다는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둔해져서 알아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1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어떻게 생각했나?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로 알았다 (삼상 3:4-8) ⇨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와의 전에서 여호와를 섬긴 사무엘도 그랬으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15.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어떻게 대답했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삼상 3:10) ⇨ 9 절에서 엘리 제사장은 어린 제자 사무엘에게 비로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었는데 3 번씩 알아차리지 못한 후였습니다.
16.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 하신 이유는? 아들들의 죄악을 금하지 않아서 (삼상 3:13) ⇨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에게 경고(삼상 2:27-36)한지 얼마 후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급기야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17.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무엇이 있으면 이길 것이라 생각했나? 언약궤 (삼상 4:3)
18.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에베에셀 진영으로 옮긴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는 어떻게 되었나? 여전히 패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으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다 (삼상 4:10-11) ⇨ 이는 실로로부터 언약궤를 첫 번째로 옮긴 일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였습니다.
19. 블레셋과의 전투에 패하고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어떻게 되었나?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삼상 4:18)
20.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해산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나? 이가봇 (삼상 4:19-21) ⇨ 문자적으로 '영광스럽지 않은' 또는 '수치스러운'을 뜻하는 단어인데 비느하스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한탄하며 아들에게 지어 준 이름입니다.
21.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 (삼상 5:3-4) ⇨ 언약궤가 두 번째로 옮겨졌는데 에베에셀 진영에서 아스돗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였습니다. 다곤은 블레셋이 믿던 여러 신들 중에 으뜸되는 신으로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은 모습은 엎드려 비는 꼴입니다. 게다가 둘째 날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버린 모습이었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간담이 서늘했겠네요.
22.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리신 재앙은? 독한 종기의 재앙과 사망의 환난 (삼상 5:6, 9, 11-12)
23.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이웃 성읍으로 떠밀어 보냈는데 그 성읍들의 이름은? 가드와 에그론 (삼상 5:6, 8, 10) ⇨ 언약궤가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옮겨졌는데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였습니다.
24.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함께 보낸 속건제물은? 금 독종 5 과 금 쥐 5 마리 (삼상 6:4) ⇨ 블레셋의 5 방백(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삼상 6:17)의 숫자대로 자신들을 해친 독한 종기와 땅을 해롭게 한 쥐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 속건제물로 함께 보냈습니다. 이러한 제물은 레 5:15-10 에 명시된 제물들과는 동 떨어져 있는 것이고 블레셋 이방종교의 방식으로 속죄를 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5. 블레셋이 돌려보낸 언약궤가 돌아온 이스라엘 성읍은? 벤세메스 (삼상 6:13-15) ⇨ 언약궤가 다섯 번째로 옮겨졌는데 에그론에서 벤세메스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였습니다.
26. 삼상 6: 19 ⇨ 벤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 본 까닭으로 (민 4:20 에 기록된 대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숫자가 '(오만) 칠십' 명이라 되어 있으니 칠십 명인가, 오만 명인가, 아니면 오만 칠십 명인가? NIV 에는 70 명으로 되어 있고 KJV 에는 좀 복잡하게 'fifty thousand and threescore and ten(5 만 그리고 60 그리고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세메스가 작은 성읍이기에 오만 칠십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에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과 또 여러 사본들 간의 차이 점등으로 이 세가지 숫자를 놓고 왈가왈부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죽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미신적 능력을 가진 물체로 간주하여 호기심과 또 그를 이용하려던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7. 벤세메스로부터 언약궤가 옮겨진 곳은? 기랏여아림 (삼상 6:21-7:2) ⇨ 언약궤가 여섯 번째로 옮겨졌는데 벤세메스에서 기랏여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언약궤의 이동을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From	To	By	성경구절
1	실로	에벰에셀	이스라엘	삼상 4:1-4
2	에벰에셀	아스돗	블레셋	삼상 5:1
3	아스돗	가드	블레셋	삼상 5:7-8
4	가드	에그론	블레셋	삼상 5:9-10
5	에그론	벤세메스	블레셋	삼상 6:13-16
6	벤세메스	기랏여아림	이스라엘	삼상 6:20-7:2

28. 기랏여아림으로 옮겨진 언약궤는 누구의 집에 모셔졌나? 아비나답의 집 (삼상 7:1)
29. 기랏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진 언약궤는 누가 지켰나?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 (삼상 7:1)
30. 언약궤가 기랏여림으로 들어온 후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모아 여호와께 기도하며 영적 각성을 촉구한 곳은? 미스바 (삼상 7:5) ⇨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인데 성경에 6 군데의 지명이 미스바 또는 미스베로 되어 있어 많이 헷갈립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고 세운 돌기둥(창 31:49),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 미스베(수 15:38), 사사 입다가 길르앗의 암몬 자손과의 일전을 위해 진을 친 미스바(삿 10:17), 다윗이 도피 시절에 모압 왕에게 부모를 의탁하려고 찾아갔던 미스베(삼상 22:3),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인 미스바 이렇게 6 곳을 들 수 있습니다.
31.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러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사무엘은 무엇을 했나? 번제 (삼상 7:9)
32.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러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내리셨나?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삼상 7:10)
33.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사무엘이 세운 돌을 무엇이라 불렀나? 에벰에셀 (삼상 7:12) ⇨ 도움의 돌이라는 뜻.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후 실로에서 언약궤를 옮겨 온 곳의 지명도 에벰에셀입니다. 18 번 참조
34. 사무엘은 어느 성읍들을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나? 벤엘, 길갈, 미스바 (삼상 7:16)
35. 사무엘의 집은 어디에 있었나? 라마 (삼상 7:17, 1:19) ⇨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으로 여러 곳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무엘의 고향 라마를 다른 지명과 구분해서 '라마다임소빔(삼상 1:1)'이라고도 합니다.

36. 사무엘이 늙으매 사사로 삼은 두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야 (삼상 8:2)
37.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 있을 때 뇌물을 받고 공평한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한 것은? 왕 (삼상 8:3-5) ⇨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삼상 8:7)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럴 일을 예견하시고 신 17:14-20 에 왕정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38. 왕정이 펼쳐질 때 백성들에게 지워질 책무들은? 병역의 의무(삼상 8:11-12), 왕을 섬길 의무(삼상 8:12-13, 16-17) 및 납세의 의무(삼상 8:14-15, 17)
39. 사울은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인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삼상 9:1-2) ⇨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막내 아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레위인의 첩을 능욕한 일로 멸절의 위기에까지 처했던 지파입니다(삿 19-21 및 사사기 노트 75 번 - 80 번 참조). 그래서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자기가 가장 미약한 지파의 출신임을 상기시킵니다(삼상 9:21). 이 구절은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연유는? 아버지의 잃은 암나귀들을 찾지 못하던 중 선견자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삼상 9:3-9) ⇨ 선견자에 대한 설명은 삼상 9:9 참조
41. 산당 (삼상 9:12) ⇨ 가나안 족속들이 산 위에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민 33:52)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도 산당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성막의 위치에 대한 기록도 확실치 않고 아직 성전을 세우기 전이라 언약궤가 이리 저리 옮겨지는(노트 27 번 참조) 수난도 받았던 때이라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기브온에 아주 큰 산당이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왕상 3:2-4).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진 후에도 산당예배가 우상숭배로 타락하여 지속됨으로 선지자들에게(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의해 지탄되기도 하였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는 신실한 왕들은(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산당을 파괴하였고(대하 14:2-5, 17:5-6, 31:1) 타락한 왕들은(여로보암, 여호람, 아하스, 므낫세) 산당을 재건하는 일들이(왕상 12:25-31, 대하 21:11, 대하 28:24-25, 왕하 21:1-3) 있었습니다.
42. 사울은 아버지의 잃은 암나귀를 몇 일간 찾아 다니다 사무엘을 만났나? 3 일 (삼상 9:20)
43. 산당에서 내려온 사무엘과 사울이 담화한 곳은? 지붕 (삼상 9:25) ⇨ 당시의 집은 지붕이 평평하였으며 성경에 나오는 지붕은 옥상에 해당됩니다. 유대지방은 사막 특유의 날씨로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시원해짐으로 낮 동안 더워진 집안을 피해서 저녁 때에는 지붕 위로 올라가 쉬기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지붕은 곡식을 말리는 곳(수 2:6), 휴식처(수 2:8), 대화의 장소(삼상 9:25), 기도의 장소(행 10:9) 등으로 묘사되어 있고, 초막절에는 초막을 치기도(느 8:16) 하였으며, 지붕에서 애통하며 울기도 하였고(사 15:2) 우상을 숭배(왕하 23:12)하기도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4. 사무엘은 사울이 지도자가 될 몇 가지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나? 3 개의 징조 (삼상 10:1-9) ⇨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징조(삼상 10:2), 다블 상수리나무에서 벤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 징조(삼상 10:3),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징조(삼상 10:5-6)
45. 사울이 지도자가 될 세 징조 중 마지막 징조로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후에 생긴 속담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삼상 10:12) ⇨ 사울이 비록 준수한(삼상 9:2) 소년이었지만 선지자가 될 모습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부터 사울을 알았던 사람들이(삼상 10:11) 사울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46.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곳은? 미스바 (삼상 10:17) ⇨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삼상 9:16)에 따라 이미 사울에게 은밀히 기름을 부었지만(삼상 10:1) 왕립을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백성을 모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왕을 세우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와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삼상 10:18), 그렇지만 너희들이 원하기에 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삼상 10:19). 미스바에 대해서는 30 번을 참조하세요. 에덴동산에서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인간들이 왕정의 잘못됨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47. 사무엘은 어떠한 방법으로 왕을 뽑았나? 제비 뽑기 (삼상 10:20-21) ⇒ 본문에 제비 뽑기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 과정을 보아 제비 뽑기에 의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제비 뽑기의 결과는 우연적인 것이나 제비를 뽑은 사람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드러졌습니다(잠 16:33). 제비로는 우림과 둠뫼(출애굽기 노트 92 번 참조)을 사용했는데 줄여서 우림의 판결(민 27:21)이라고도 합니다.
48. 왕으로 뽑힌 사울은 어디에 있었나?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어있었다 (삼상 10:21-22) ⇒ 사울은 덩치에 비해(삼상 10:23) 솟기도 배짱도 없었나 봅니다. 후일에 다윗을 질투하고 의심하는 쯔생원의 모습을 일찌감치 보였습니다.
49. 사울이 왕으로 뽑힌 후 기브아 집으로 돌아 갈 때 누구와 함께 갔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삼상 10:26) ⇒ 무슨 일을 하던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유력한 자들이란 유지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니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27 절에 나오는 불량배들과 비교가 됩니다.
50.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어디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겁박하였나? 길르앗 야베스 (삼상 11:1) ⇒ 길르앗은 지방의 이름이며 야베스는 성읍의 이름입니다. 사사기에는 야베스 길르앗(삿 21:9)으로도 기록되어 있으며 길르앗 지방은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민 32:40) 땅입니다. 영어성경에는 양쪽 다 Jabesh Gilead(또는 Jabesh-gilead)로 되어있는데 한글성경에는 왜 다르게 번역했는지 알 수가 없군요. 미국식으로 하면 야베스 길르앗이고 한국식으로 하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번역에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베스 길르앗의 주민들은,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봉변 당했을 때 소집한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아, 죽임을 당했었습니다(사사기 노트 79, 80 번 참조). 그 이후로 야베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별로 가까이 지내지 않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 사울에게 구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전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삼상 11:3).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상한 것은 1 주일의 말미를 달라는 야베스 장로들의 요청을 암몬의 나하스가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나하스가 오만 방자하여 야베스를 깔보고 또 이스라엘 모두를 얕잡아 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비롯한 불량배들도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왕권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만드신 것이 분명합니다(삼상 11:12 참조).
51. 야베스의 전령이 암몬의 침략을 알리기 위해서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밭에서 소를 몰고 오고 있었다 (삼상 11:5) ⇒ 사울이 왕은 되었지만, 사사의 연장선에서 과도기에 있었으며, 아직 권위도 책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듯 밭이나 갈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52. 야베스의 전령으로부터 암몬의 침략을 보고받은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울이 크게 노하였다 (삼상 11:6) ⇒ 그리고 사울은 한 겨리(신명기 노트 30 번 참조)의 소를 잡아 각을 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어 거병을 요청했습니다(삼상 11:7).
53. 사울의 요청으로 각 지파에서 보낸 군대가 집결한 곳은? 베섹 (삼상 11:8) ⇒ 이 곳에 집결한 병력을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 30 만에 유다 자손 3 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11 지파와 유다 지파를 따로 세었는지 궁금합니다. 숫자로 보면 전체 33 만을 12 로 나누면 27,500 명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유대 지파가 자기네 몫만큼 병력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증되지 않은 베섹의 위치로 인해 유대 지파의 땅(사사기 노트 2 번 참조)인데도, 또는 제 3의 도시인 경우 너무 멀어서 많이 못 보냈다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유대 지파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병력을 보냈으며 이미 남 유대와 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질 징조가 이 때부터 있었나 봅니다.

54. 사울이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왕위에 정식으로 오른 곳은? 길갈 (삼상 11:15) ⇨ 사무엘은 라마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삼상 10:1),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아(삼상 10:20-21) 사울을 왕으로 정했지만 암몬 족속을 불리친 후 비로서 길갈에서 즉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55. 왕정이 시작되며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통치권을 사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사무엘은 마지막 설교를 통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할 경우 심판이 있을 것임을 상기시키며 그 상징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행한 이적은? 우레와 비 (삼상 12:17-18) ⇨ 이 때는 밀을 거두는(삼상 12:17), 지금으로 따지면 5 월이나 6 월에 해당되며 비가 오지 않는 철입니다.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었음을 이 이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 다 멸망하리라고 예언(삼상 12:25)합니다.
56.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첫 번 전투에 앞서 명령되어 행한 일은? 직접 번제를 드렸다 (삼상 13:8-14) ⇨ 블레셋 3 만 병거와 6 천 마병(삼상 13:5)과의 일전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떨며 숨어버리는(삼상 13:6-7) 상황에 접한 사울 왕은 사무엘의 기다리라는 명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나머지 스스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결국 사울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삼상 13:14)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고 후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 15:22)'라는 사무엘의 질책과 함께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삼상 15:23)'라는 선언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57. 블레셋과의 첫 번 전투에 사울과 함께한 백성의 수는? 600 여명 (삼상 13:15)
58. 블레셋과의 첫 번 전투가 벌어질 때 이스라엘에 대장장이가 있었나? 없었다 (삼상 13:19) ⇨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무기를 제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공들을 없애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버리려면 블레셋으로 가야만 했었습니다(삼상 13:20).
59. 보습 (삼상 13:20) ⇨ 쟁기나 곡괭이 끝에 끼우는 삼 모양의 쇠
60. 블레셋과 싸우는 날 이스라엘 백성 중 칼이나 창이 있었던 사람은?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삼상 13:22) ⇨ 수적으로도 절대열세였으며 무기 또한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61. 요나단은 그의 무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하나님의 어떤 표징을 구했나? 일부러 자신들을 블레셋에게 노출시켰을 때 블레셋의 반응 그 자체 (삼상 14:8-10) ⇨ 특히 블레셋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블레셋을 물리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62.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졌고(삼상 14:13), 지진이 났으며(삼상 14:15),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죽었다(삼상 14:20)
63. 블레셋 진영의 혼란을 본 사울은 어떻게 했나?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언약궤)를 가져오게 하였으나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해지는 것을 보고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고 하였다 (삼상 14:18-19) ⇨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한 것을 보면 전투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 것 같은데 적진의 혼란을 보고 제사를 중단시킨 모습입니다. 적진의 자중지란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모르고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울이 드리려던 제사는 오직 형식적이었던 것입니다.
64.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삼상 14:21)이란? ⇨ 블레셋이 점령한 이스라엘 영토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강제로 징집되었습니다.

65.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날 사울이 내린 명령은? 원수들에게 보복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말 것 (삼상 14:24) ⇒ 전쟁에 지친 백성들에게 저녁 때까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금식은 비상시에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행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쉴 틈도 주지 않고 동원하기 위해서 달달 볶다시피 금식을 강요한 것입니다.
66. 사울의 금식령을 어긴 사람은? 요나단 (삼상 14:27) ⇒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금식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67. 백성들이 탈취한 짐승들을 잡아 먹을 때 저지른 죄악은? 피째 먹었다 (삼상 14:32-33) ⇒ 저녁 때가 되어 금식령에서 풀려난 백성들은 허기진 나머지 하나님의 명령(레 17:10-11, 레위기 노트 14 번 참조)을 어기고 고기를 피째 먹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도자(사울)의 잘못된 통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사울은 백성들이 죄를 범한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백성들이 땅에서 짐승들을 잡아먹기에(삼상 14:32) 피를 뺀 경황이 없었던 것을 보고 큰 돌을 굴러 오라하고(삼상 14:33) 백성들에게 명하여 그 돌 위에서 잡아 피를 빼라고 합니다(삼상 14:34).
68.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때는 언제? 블레셋과의 전쟁 후 (삼상 14:35)
69. 사울이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밤새 추격하고자 했을 때 제사장이 무어라 했나?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 보자 (삼상 14:36-37) ⇒ 무리하게 전쟁을 계속하려는 사울에게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사울은 제 힘으로 전쟁에 이긴 줄로 알았지만 제사장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전쟁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삼상 14:37) 백성 중에 죄가 있어서(삼상 14:38) 그런 것으로 판단합니다.
70. 사울의 명을 어기고 꿀을 먹은 일로 사울이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 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 요나단의 목숨을 위해서 탄원하였다 (삼상 14:45)
71.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하시며 내리신 명령은?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가축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삼상 15:3) ⇒ 출애굽 시 아말렉과의 싸움 후에 하나님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고 맹세하셨습니다(출 17:16). 출애굽기 노트 73 번부터 77 번까지 참조.
72. 사울이 아말렉을 치기 전에 그들에게서 떠나 피하라고 한 족속은? 겐 사람 (삼상 15:6) ⇒ 겐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사기 노트 6 번 참조
73.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아말렉 왕의 이름은? 아각 (삼상 15:8)
74.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사울과 백성들이 따르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 백성은 진멸하였지만 좋고 기름진 가축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다 (삼상 15:8-9)
75.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일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신 말씀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삼상 15:11)
76.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기념비를 세운 곳은? 갈멜 (삼상 15:12) ⇒ 유다 지파의 산지에 속하는 성읍 중 하나로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겨루어 이긴 갈멜 산과는 다른 곳입니다.
77. 사울은 가장 좋은 양들과 소들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로 어떤 핑계를 대었나? 제사를 드리기를 위해서 (삼상 15:15)
78.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_\_\_\_\_를 \_\_\_\_\_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_\_\_\_\_이 \_\_\_\_\_보다 낫고 \_\_\_\_\_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2) ⇒ 목소리, 청종, 순종, 제사, 듣는
79. 거역하는 것은 \_\_\_\_\_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_\_\_\_\_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삼상 15:23) ⇒ 점치는, 사신, 우상

80.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 말하고 돌아 가려 할 때 사울은 사무엘에게 어떤 일을 청했나?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자기를 높여주기를 (삼상 15:30) ⇨ 범죄한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기 보다는 체면을 세우는 쪽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81.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자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나? 용모와 키보다는 중심을 (삼상 16:7) ⇨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외모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습니다.
82. 다윗에게는 몇 명의 형이 있었나? 7 명 (삼상 16:10)
83.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한 기름 병은 어떤 것이었나? 뿔병 (삼상 16:13) ⇨ 양의 뿔로 만든 기름병으로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했던 단순한 '기름병(삼상 10:1)'과는 다릅니다. 삼상 16:1 에서 하나님께서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고 사무엘에게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84.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 번뇌할 때 어떻게 하면 나으리라고 신하들이 말하였나?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수금을 타면 (삼상 16:16)
85.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새 (삼상 16:19)
86. 블레셋의 거인 장수의 이름은? 골리앗 (삼상 17:4)
87. 골리앗은 몇 일간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나? 40 일 (삼상 17:16)
88.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사울이 말리니 다윗은 어떻게 대답했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삼상 17:37) ⇨ 양을 지킬 때 곰과 사자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로 가능했다는 고백과 함께, 그와 같은 보호하심이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임하실 것을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89.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하여 나갈 때 갖고 간 무기는? 맷돌 5 개와 물매 (삼상 17:40)
90. 다윗을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이 한 말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삼상 17:47)
91.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한 사울의 아들의 이름은? 요나단 (삼상 18:1)
92.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했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이 자는 만만이로다 (삼상 18:7) ⇨ 민심이 다윗에게로 기울어 가는 것을 느낀 사울은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길 걱정에도 그를 주목하고(삼상 18:8-9) 급기야는 창으로 죽이려고까지(삼상 18:11, 19:10) 하였습니다.
93. 사울이 다윗과 결혼시키기를 원했던 딸의 이름은? 메랍 (삼상 18:17) ⇨ 사울은 다윗과 딸을 결혼시키려 하면서도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기를 기대했습니다 (삼상 18:17 하부). 그러나 다윗은 자기 가문의 이름없음을 내세워 그 결혼을 거절합니다 (삼상 18:18).
94. 다윗을 사랑하여 결혼한 사울의 둘째 딸의 이름은? 미갈 (삼상 18:20, 14:49)
95. 다윗이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자객들을 피하여 도망간 곳은? 라마 (삼상 19:18) ⇨ 다윗은 미갈의 기지로 창문으로 도망합니다(삼상 19:12) - 시편 59 편은 이때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삼상 1:19-20)입니다. 나웃은 라마 지방의 한 성읍으로 사무엘의 선지학교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나웃은 '숙소' 또는 '앉다'라는 뜻으로 선지학교의 기숙사를 칭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96. 라마 나웃으로 온 사울의 전령들과 사울이 한 일은? 예언 (삼상 19:20-24) ⇨ 노트 45 번 참조
97.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확인할 동안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 곁에 숨어 있으라고 한 바위는? 에셀 바위 (삼상 20:19) ⇨ 마침 초하루(삼상 20:5, 개역 판에는 월삭)이기에 번제와 화목제(민 10:10)를 드리는 때였습니다. 특히 매년제(삼상 20:6)를 드리는 때는 칠월 초하루였습니다(레위기 노트



19 번 참조). 제사 후 관습에 따라 왕과 신하들이 함께 식사하는데 다윗은 베들레헴으로 매년제를 드리러 갔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을 보아 다윗에 대한 그의 마음을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98. 다윗이 에셀 바위 곁에 숨어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사울의 마음을 알리기로 했나? 요나단이 화살을 쓰고 아이를 보내어 화살을 찾아오라고 시킬 때 화살을 그 아이를 지나서 앞쪽으로 쏘았으면 도망가라는 신호 (삼상 20:19-22)
99.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하여 도망간 곳과 거기서 만난 제사장의 이름은? 놉, 아히멜렉 (삼상 21:1) ⇒ 놉은 베냐민 지파의 성읍(느 11:31-36)으로 당시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도망자임을 숨기며 그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시기가 지난 진설병(삼상 21:6)과 골리앗의 칼(삼상 21:9)을 주었습니다.
100.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것을 보고 후일 사울에게 밀고한 자의 이름은? 도엑 (삼상 21:7, 22:9-10) ⇒ 도엑은 에돔 사람으로 이방인데 사울은 그를 목자장으로 등용했으며 성막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사울의 영적 타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훗날 도엑의 밀고로 사울 왕은 놉 성읍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위시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사울 왕의 병사들이 죽이기를 싫어하였습니다(삼상 22:17). 이 때 도엑이 앞장 서서 제사장 85 명과 남녀노소 및 가축까지도(삼상 22:18-19) 살상하였습니다.
101. 다윗이 놉을 떠나 도망간 곳과 그곳의 왕의 이름은? 가드 왕 아기스 (삼상 21:10) ⇒ 가드는 블레셋의 5 성읍(수 13:3,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중 하나이며 거인족(삼하 21:22)이 살았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였습니다 (삼상 17:4).
102.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장수임을 알아보자 다윗은 어떻게 하였나? 미친 체하고 대문쪽에 그적거리며 침을 흘렸다 (삼상 21:13) ⇒ 시편 34 편은 이때 기록된 시입니다. 시편 34 편 표제에 있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을 지칭합니다.
103. 사울의 명으로 도엑이 놉 성읍의 제사장들과 남녀노소 및 가축까지도 멸절시킬 때 도망한 아히멜렉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아달 (삼상 22:20)
104. 사무엘이 죽은 후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한 일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 올려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 알아보았다 (삼상 28) ⇒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쫓아 내었다고(삼상 28:3)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러한 자들을 믿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명령(레 19:31)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사울은 잠시 제정신을 찾은 듯 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나머지 숙청을 피해 숨어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앞으로 할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내기에 이르렀습니다(삼상 28:11, 15).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삼상 28:19) 말합니다.
105. 블레셋 군대와 사울이 최후의 전쟁 끝에 세 아들이 전사하고 자신은 자결한 곳은? 길보아 산 (삼상 31:1-8) ⇒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진을 쳤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블레셋에 내 주시었기에(노트 104 번 참조) 패전하였습니다.
106.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세 아들들의 시체를 못 박아 둔 곳은? 뱀산 성벽 (삼상 31:10-12)
107. 사무엘상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이야기로 계속되니 이를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소	성경구절 (삼상)	주목할만한 일	시편
1	기브아	15:34, 18:27	기브아는 사울이 왕정을 펼친 곳으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한 다윗은 기브아에 있었다.	

		19:11-12	사울이 보낸 자객들을 피하여 미갈의 도움으로 탈출	59 편
2	라마 나웃	19:18-24	라마 지방 성읍 나웃, 노트 95, 96 번 참조	
3	기브아	20:1 20:16-17	사울이 라마 나웃으로 다윗을 잡으러 오니 다시 기브아로 도망가서 요나단과 언약을 맺는다.	
4	들	20:5-6	베들레헴으로 매년제를 드리러 실제로 갔다고 보기도 함	
5	에셀 바위	20:19 20:42	요나단이 화살로 연락, 노트 98 참조. 요나단과 작별	
6	놉	21:1-9	놉 성읍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피신, 노트 99 번 참조	
7	가드	21:10-15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 노트 101, 102 번 참조	34 편
8	아들람	22:1-2	아들람의 굴에 숨었음	57 편
9	모압	22:3-4	모압 지방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의 왕에게로 도피	
10	헤렛	22:5	선지자 갓의 충고로 유다 땅 헤렛 수풀로 도망 이때 도역의 밀고로 놉 성읍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절 당함, 노트 100 번 참조	52 편
11	그일라	23:1-5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	
12	십 광야	23:14, 19	십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 함	54 편
13	마온	23:24	마온 광야 아라바 지역으로 도피	
14	엔게디	23:29	굴에서 뒤를 보는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뱀 (24:4)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말하자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하며 자기 후손들을 해치지 않기로 맹세시킨다.	142 편
15	바란	25:1	사무엘의 죽음	
16	갈멜	25:2-42	나발을 방문하여 도움을 청하나 나발은 이를 거절한다. 이에 다윗이 나발을 치려 할 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나발의 집안이 화를 면한다. 그러한 일을 전해들은 나발이 겁에 질려 10 여일 앓다가 죽는다. 이에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는다.	
17	하길라	26:1-25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하길라까지 쫓아와 진을 치고 잘 때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부어 왕으로 삼으신 자이기에, 단지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다. 이를 안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축복한다.	
18	가드	27:2-4	사울이 결국은 자신을 붙잡으려 할 것을 아는 다윗은 블레셋의 5 대 도시(노트 101 번 참조) 중 하나인 가드의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피 함.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방인의 수하로 들어간 큰 실수를 저질렀다.	56 편
19	시글락	27:5-12	아기스에게 다윗이 스스로 종이라 하며 왕과 감히 같은 성읍에 있을 수 없다 하니 아기스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내어 준다. 시글락에 있는 동안 다윗은 유다의 옛 원수들을(27:8) 침노하여 증거인멸을 위해서(27:11) 모두 죽이는데, 아기스에게는 유다와 친한 족속들을(27:10) 침노하였다고 거짓 보고를 한다. 이는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함이었다.	
20	아벡	29:1-11	블레셋의 군대가 아벡에 집결하여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다윗이 아기스 수하의 장수로 출전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싫어함으로 아기스가 다윗의 출정을 말린다.	
21	시글락	30:1-8	다윗이 아기스의 만류로 시글락으로 퇴군하였는데 이미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공하여 불사르고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포함하여 여자들을 모두 납치하여 갔다.	
22	브솔 시내	30:9-20	브솔 시내를 건너 아말렉을 추격하는 다윗은 병들어 버려진 아말렉 종의 도움으로 아말렉 군대가 야영하는 곳을 습격하고 약탈당한 모든 것들과 납치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되 찾았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삼상 15:2-3) 명령하시었는데 사울은 좋은 것들이 아까워 남겼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 노트 71 번부터 75 번 참조. 사울은 언짢하게 블레셋과 싸우고 오히려 다윗이 아말렉을 진멸시킨다.	
23	시글락	30:26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와 아말렉으로부터 되 찾은 전리품들을 나누어 준다.	